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문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 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 시민운동
세계 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111호 2008년 2월

비상(飛上)을 향한 준비의 계절, 2월!

소망의 2008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INDEX

2 2008성시화!
영익빌 선거로 새로운 기억을 꿈꾼다
6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
11 졸업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9 | 우리곁에 있는신
김봉선



13 | 왕과 함께한
하룻밤

2008년 춘천성시화!

"영역별 선교로 새로운 비약을 꿈꾼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영역분과별 선교전략을 살펴보다!

참여자 : 김덕용(총무), 박인관(총괄분과), 이병철(청년), 지용찬(영성), 정재호(통일)
진행자 : 정재호 / 사진: 김미경

지난 2007년은 성시화 역사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던 해였다. 2007년 9월 6일(목), 7일(금) 성시선교대회 중에 개최되었던 '성시화를 위한 영역별 성시세미나'와 '포럼'은 춘천지역의 영역별 선교에 새로운 비전과 도전,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춘천성시화는 영혼구원과 사회선교를 동시에 추구하는 영역별 복음화를 통한 총체적 사회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삶의 일터에서 새로운 하나님나라의 문화변혁을 이루어나갈 때 춘천성시화는 완성될 것이다. 춘천성시화를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끌어 나아갈 춘천기독교연합회 영역분과위원회. 이들은 2008년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박인관(영역분과 총괄분과장), 김덕용(연합회 총무), 지용찬(영성분과위원장), 이병철(교육청년분과위원장), 정재호(통일분과위원장). 영역과 연합, 영성과 교육, 그리고 통일을 위한 5개 분과의 새해 비전을 따라 성시화의 선교적 꿈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먼저 기독교연합회의 영역별 선교와 연합운동의 전체적 방향에 대해서 말해 달라.

▪ 박 인 관 목사(기독교연합회 영역분과 총괄분과장)



춘천성시화운동이 영역별 변혁선교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춘천지역의 영적자원들을 영역별, 은사별로 파악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선교대회시에 설문조사를 통해 성도들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영역별로 분류하였는데, 영역별 분과모임으로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2008년도는 영역별 변혁선교의 기초를 다지는 해로 새 출발하려고 다짐하고 있다. 지난해 영역별 세미나를 통하여 영역선교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심어주었다. 가능한 분과부터 영역별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하려고 한다. 우리 춘천은 현재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부흥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환경이다. 마약이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대중적 영적각성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도시가 변혁되어가는 영적부흥의 경험은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거쳐 왔다. 물론 시대를 초월하여 영적각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춘천성시화가 이미 이루어진 영적부흥의 단계를 토대로 각 영역에서 문화적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등적 사회적 영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역별 선교운동은 이러한 차원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김 덕 용 목사(기독교연합회 총무)

춘천성시화운동이 효과적인 선교운동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2년 동안 연합회 임원으로 섬기면서 느낀 것이 있다. 먼저 춘천지역의 성시화와 복음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갈 지도그룹의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장기적인 비전과 효과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루기가 어렵다. 춘천성시화와 복음화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은 춘천지역의 영적지도자들이 지도그룹을 형성할 때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원로그룹(70대이후), 자문그룹(60-70대), 이사 및 후원그룹(50-60대), 기획그룹(40-50대), 실깅이그룹(30-40대)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올 한 해 동안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행사보다도 춘천성시화를 섬기고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시스템은 행정적 조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친밀한 영적, 인간적 친교를 통해 형성되리라 본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은 처리하는데 있어서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 연합회는 연합운동이다. 연합은 한사람의 힘이나 생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중요하다. 합리적 절차가 없이 결정된 모든 일들은 오히려 불신감만 고조시켜 장기적으로 보면 연합운동에 치명적인 장애요소가 된다. 합리적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을 추진할 때 자발적 협력을 도출하게 된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되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뒷말이 없어야 한다.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성이 없는 운동은 세속적 사회운동으로 전락될 것이며, 교육이 없이는 성시화운동의 다음세대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지 용 찬 목사(기독교연합회 영성분과위원장)



그렇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기도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춘천지역의 기도원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해서 기도원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올해 기도원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의 활성화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원 원장님들의 정기적인 모임도 필요하다. 기도원은 지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생활에 힘을 얻고 활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은 꼭 필요하다. 따라서 기도원 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

잉크유지비 절약의 시작은 무한충전프린터입니다!! 유치원, 개척교회 적극추천드립니다!
C59 4컬러 보급형프린터 임대료:월32,000원
R290 인기상품 6컬러 고속포토프린터 임대료:월45,000원
C6280 인기상품 6컬러 포토복합기 임대료:월55,000원
CX6900F 4컬러 비지니스복합기(팩스) 임대료:월57,000원
무한잉크연속장치가 무엇인가요??
잉크카트리지를 번거로이 교체하지않고 연속적인 잉크 공급장치를 말합니다.
용량대비가격을 따져보면 80-90%정도 비용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앤오피스 TEL:256-1989 019-9742-6290
성심병원성거리에서강대방향 100M



▲ 2007 춘천선교대회 영역별 포럼 ▲ 2007 춘천선교대회 산상기도회 ▲ 2008년 1월 15일 예수원 삼수령선교센터 방문

목 도와야 한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기도원 운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어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춘천성시화운동도 결국은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운동이 살아나야 한다.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다. 작년에는 기도그룹을 대표하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CCPN(춘천기도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산상기도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CCPN에 더 많은 기도그룹들이 참여하여 춘천성시화를 위한 정기적인 기도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10여 년 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춘천지역의 영적기상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적지도를 만들어서 지역교회에 배포한 적이 있다. 각 지역의 영적현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시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영역별 선교를 위한 기도책자 제작도 필요하다. 영적지도나 기도책자의 제작은 기독교연합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선교단체협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올해 춘천에 기도운동의 새바람이 일어나도록 힘쓰겠다.

▪ 이 병 철 목사(기독교연합회 교육청년분과위원장)



청소년 신앙교육을 연합회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지역의 개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 세 번째는 시대적인 안목을 키워주는 것. 마지막으로는 지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부분은 춘천성시화운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얼마 전 청소년 파워캠프와 꽃동산교회에서 진행하는 유년주일학교 집회에 참여하고 돕아왔다. 참여 후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좋은 집회를 춘천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가까운 곳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집회를 하면 청소년들에게 지역복음화와 춘천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어느 집회에 참여하든지 은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춘천의 교회가 연합하고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목회자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과 비전을 나누게 되면 성시화의 주역들은 청소년들에게 성시화의 비전을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으로는 에스컴이 잘 감당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각 선교단체들이 헌신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창립된 청년포럼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청년분과에서는 여러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년이나 3년마다 정기적 청년, 청소년 연합집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21세기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분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2008년 성시선교대회에 대한 비전을 말해 달라.

▪ 정 재 호 목사(기독교연합회 통일분과위원장)

통일분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춘천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통일 · 북한선교기도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통일나눔터회원들과 매주 화요일 오후5:30분, 거성교회에서 정기 기도모임을 가짐). 지난 1월 둘째 주에는 통일나눔터(춘천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기도모임)회원들과 함께 태백 예수원에 방문하여 삼수령선교센터 대표이신 벤토레이 신부님과 생명의 빛(북한선교단체) 대표 김00선교사님과의 모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예수원 삼수령선교센터에서는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다음세대양육과 통일이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북한선교학교', '노동학교' 그리고 '기도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예수원 삼수령센터와 평화한국,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등과 협력 하에 통일분과에서도 1년 2학기제로 통일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단동가나안농군학교(김홍병교장)와 연대하여 '북한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단동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평안남도 평성시의 요청을 받아 조선산림 녹화를 위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년에 1개 군에 유실수를 심어 홍수, 가뭄예방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북한화가들이 그린 미술품(유화)전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광염교회(박인관목사)에서 그림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춘천을 통일한국과 북한선교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2007년도는 북음주의 통일운동, 북한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 전국규모의 제1회 통일한국대회(2007. 7.24~27)가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열렸다. 통일문제, 북한선교 전문강사 100여명이 협력하고 500여명의 대학, 청년들이 참가한 대회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였다. 통일과 북한선교를 선도적으로 주도할 통일한국대회 및 북한선교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박 인 관 목사(기독교연합회 중광분과장)

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는 성도들에게 영적 감화를 주는 대중 집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뜨른 성도들의 영성 향상을 위해 유명강사를 모시고 은혜로운 대중 집회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면 성시화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없다. 대중 집회와 함께 춘천지역의 성도들에게 성시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성시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해야하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전문가들만 모여서 전략을 세우는 영역별 모임은 성시선교대회기간이 아니라도 평상시에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시화를 위해 결단하는 것은 성시선교대회기간 중에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2008년도 성시선교대회는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 김 덕 용 목사(기독교연합회 총무)

2007년도 성시선교대회는 한 주간 전체를 선교대회 기간으로 정하고 주일저녁부터 수요일까지는 대중 집회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영역별 성시세미나 기간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성시선교대회는 대중 집회와 영역별 선교대회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일정을 단축하면서 집약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는 춘천지역이 모든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아낌없는 충언을 해주시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합의되어 결정된 행사들은 격려와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영역분과별 선교전략은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북한 나무심기를 위한
북한화가 그림전시회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통일한국의 국토를 푸르게 합니다.
※1구좌(나무 한그루) 1,000원

■ 북한 그림전시회 예정
- 제1차 2월 3일(주일) 광염교회(☎263-5007)
- 제2차 2월 10일(주일) 거성교회(☎252-6700)
- 제3차 2월 17일(주일) 나눔교회(☎251-9191)
- 제4차 2월 24일(주일) 사림의교회(☎241-8017)

※3월에 전시할 교회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본 행사는 단동가나안농군학교와 함께하며 수입금은 북한나무심기에 사용됩니다.

문의 : 성시본부 256-1260~1 기독교연합회 통일분과위원회 010-2030-8150



연합으로 선교를 이루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북지방회

크고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 해외개척선교를

춘천과 화천과 양구를 아우르는 춘천권의 감리교회는 대략 120여 교회에 이른다. 이 교회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대략 30여교회가 한 지방회를 이루게 된다. 춘천북지방회는 춘천의 강북지역과 화천지역을 포함하는 27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지방회의 여건은 여타 지방회에 비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27개 교회 중 10개 교회가 미자립 된 교회이다. 이 지방회의 평신도부인 '사회평신도부(총무 최문길 장로)'에서는 평신도부 주최로 지방회 소속 필리핀 선교사인 안창원 선교사를 통해 필리핀 민도로섬에 개척선교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 교회가 크고 작게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일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선교회를 조직하여 해외선교를 감당하는 일은 많지만 지방의 크고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해외개척선교를 한다는 것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감리교회 200여개의 지방회 중에서도 지방회 연합으로 해외선교사역을 하는 지방회는 15개 지방회에 불과할 실정이다. 이에 춘천북지방회의 연합해외선교사역은 연합선교에 좋은 모델이 되리라 믿는다.

평신도가 주최가 되어
27교회가 한 마음으로
1인 1만원 선교후원금



10여년간 필리핀에 수십 개의 교회개척

춘천북지방회에서는 지방회 초기부터 상걸리교회에서 시무하던 안창원 목사를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해외선교사역을 감당해 왔다. 지금까지 지방 내 여러 교회에서 필리핀 현지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러던 중 작년 초 춘천북지방의 사회평신도부에서는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지방의 소속선교사인 안창원 선교사를 통해 해외개척선교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에 선교부 주최로 열린 연합성회에서는 안창원 선교사가 직접 참석하여 선교지에 대한 사역보고와 방향을 설명하였고, 사회평신도부 총무인 최문길 장로는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설명하였다. 평신도 한 사람이 1만원의 헌금으로 필리핀 민도르섬에 교회를 건축하여 선교하기로 작정, 전 교회가 미자립교회와 해외개척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 2천여 만원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춘천북지방회 사회평신도부 향후 계획

춘천북지방회의 사회평신도부에서는 향후 2월에 열리는 지방회의에서 다시 한 번 해외개척선교를 결의하고, 3월초 전교회에 홍보동영상과 함께 평신도 한 사람이 1만원 해외선교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져 4월부터는 필리핀 민도르섬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여 8월초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운동에 지방 선교부(총무 최영조 목사)에서는 각 교회에서 1-2명의 특별전도대원을 모집하여 지방전도단을 조직할 계획으로 현재 전도대원을 모집 중에 있다. 각각 재능을 따라 워십, 의료, 미용, 영상, 어린이 등 각 부분의 헌신자들을 통해 전문적인 단기 선교팀을 조직할 예정이다. 전도단은 3월부터 해외선교훈련(MPS)을 매주 받게 되고, 특별전도훈련을 받아 5월중에 화천지역에서 전도활동을 벌이고, 7월말에는 해외개척지에 한 주간 단기선교사역을 한 후 봉헌예배까지 드리고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춘천북지방회에서는 오는 6월중 해외 미전도 개척지를 리서치할 예정이다. 아직도 지구상에 일만 종족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한다. 직접 지방내의 목회자들이 미전도 지역을 돌아보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춘천북지방은 한 개의 미전도 지역을 타겟으로 하여 지방내의 크고 작은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하는 지방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기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도 많이질 것이다. 되도록 일회성으로 치러지는 모든 행사를 지제하여 재정을 절약하고 선교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에 와 5.3%를 해외선교에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10% 이상을 해외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지방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려질 때 지방에 소속된 각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춘천북지방선교부 총무 최영조 목사]



www.seeds21.co.kr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성시화 · 통체적 도시변혁선교의 비전, 새로운 비상을 꿈꾼다!



정재호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뗀 아이가 그 어미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찌어다"(시편131)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지난 4년 동안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셨던 조영춘 목사님을 도와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해 왔다. 쉽지 않았던 여건 속에서 조영춘 목사님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독교연합회를 섬기며 확고하게 기초를 다졌다.

이제 춘천성시화운동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대 앞에 서 있다. 귀한 사명을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시화의 비전은 사람의 지혜와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다(행 26:19절). 하늘에서 보이신 비전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바울은 그의 일생을 드렸다. 그동안 성시화운동본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많은 것들이 있다. 함께 나누며 격려와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의 유산을 물려받아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후, 성시화운동은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왔다. 초창기 성시화운동은 춘천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들의 헌신적 노력위에 모든 교회가 연합하였고, 조남진, 김형목, 문선재, 이학규 등이 참여하였던 평신도 성경구락부가 적극적으로 성시화운동에 동참하였다.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시화라고 하는 공동의 비전을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였다. 이러한 연합의 전통 기반위에서 1992년에는 직장선교연합회(조충환)가 활성화되면서 성시화운동은 일터선교의 비전으로 그 지평이 더욱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다. 또한 1994년, 당시 차세대 그룹이었던 예수가족(대표허문영)에서 주관한 "성시화를 위한 94 복음과 춘천대회(강사:김진홍)"와 95년 새롭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기독교 기관장기도모임(전용태, 양인평)을 통하여 성시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1996년에는 상설기관으로써 성시화운동본부(초대본부장:조남진)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하여 춘천은 성시화의 고장으로써 그 면모와 위상을 정립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춘천성시신문(사무총장:조충환)은 성시화운동을 국내 · 외에 많은 지역에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4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오승룡)에서는 사무총장으로 조영춘 목사(예광교회)를 임명하고, 춘천성시신문 편집인으로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를 영입하여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였다. 이후 성시화운동은 한교회운동을 전개하여 교회가 연합하는데 기여하였고, 해외선교와 사회선교를 포함한 영역별 변혁선교운동,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더 높은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시켜왔다.

성시화를 향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반기련(반기독교연합)이라고 하는 세력을 형성하여 도전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확신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인들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성시화운동은 이러한 세속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완성하는 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역 -교육, 연구, 지원, 홍보- 에 집중해야한다.

첫째, 교육이다. 성시화운동은 관심 있는 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시교육이 진행되어 성시화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동시에 성시화운동의 주역들이 될 다음세대에게 성시화운동의 정신을 전수해야 한다.

둘째, 연구이다. 성시화운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의 영성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와 동시에 냉철한 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과 세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우리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성시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 지원이다. 성시화운동은 연합운동이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 혹은 한 두 특정 교회나 단체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협력할 때만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성시화 혹은 영역선교를 추구하는 국내 · 외의 다양한 그룹들과 협력과 연대를 필수적이다.

넷째, 홍보이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믿음은 듣음에서 나듯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더 많은 동역자들의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교육, 연구, 지원, 홍보의 4가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성시아카데미, 성시전략연구소, 협력과 연대를 위한 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와 국제위원회), 성시홍보처 등의 전문분과위원회 사역을 활성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겸손함과 지혜 그리고 순결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성시화란 인간의 힘이나 계획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시화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겸손함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이 없이는 영적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닫는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절)" 현재 이루어진 성시화의 열매들은 깁지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은 뿌린 씨앗이 열매 맺어온 것이다. 선배들의 헌신의 발자취를 좇아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춘천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성시화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린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춘천광염교회

너희 기쁨을 소망케 하라 [요한복음15:11]
2008년 실천목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
교제와 사랑의 공동체
교회학교의 부흥
담임목사 박 인 관
춘천시 석사동 728-8 ☎ 033) 263-5007 / www.ccls.or.kr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원단가 인하로 대폭 내렸습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실장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

춘천농아인교회는 지난 1982년 1월, 네빌뮤어 선교사와 이덕호 집사가 춘천중앙감리교회 교육관에서 농아인들을 모아 처음으로 에배드린 것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15일에 운교동, 2006년 6월 온의동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지난 2007년에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아름답고도 순수한 교회이다. 그 성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의미 있는 교회 공동체 탐방순서로 "춘천농아인교회"(허인영 전도사) 편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허인영 전도사

농아인교회(제2언어-수어로 복음사역을 하는 교회)는 원래 초교파로 DIM(Deaf Ministries International) 국제농아인선교회로 출발했다. 창설자 호주인 네빌뮤어 선교사는 1979년 인천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춘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어려움이 많았던 초기사역 시절, 많은 분들이 사심 없이 교회를 도왔으며, 특히 재활의학과병원 최병기 원장의 큰 도움으로 현재의 위치에 교회가 둥지를 틀게 된다.

현재 교회의 담임 사역자인 허인영 전도사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3대에 이르는 외가의 경건한 전통과 오직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모친의 새벽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된다. 그가 국제농아인선교회 네빌뮤어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것은 8살 때, 네빌뮤어 선교사가 춘천에서 사역중일 때 조우하였다. 그때 이미 네빌뮤어 선교사는 국내의 인천, 춘천, 강화, 정읍, 서울, 대천, 영광, 구리, 홍성, 대전에 농아인 교회를 개척하고, 필리핀, 중국, 대만, 태국, 미얀마 등과 남아프리카의 우간다, 케냐, 르완다 등에 모두 약 11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해 온 농아인 들의 영적 아비였다.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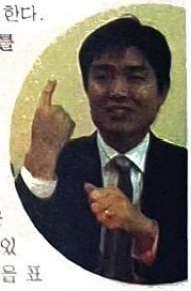
이렇게 네빌뮤어 선교사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허인영 전도사는 사도 바울처럼 후진국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동남아 필리핀, 대만 등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내 사역지로 인도하셨고, 24세 때 충남 대천(보령)에서 담임목회를 시작한 이래 7년을 한결같이 노인들을 도와 그림 설교 등 복음사역을 하다가 2007년 4월, 춘천농아인교회 담임목회자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성장하는 사역

26년 째 사역하는 춘천농아인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공동체, 양육, 전도, 친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유일하게 설립 · 운영되고 있는 춘천계성학교(특수청각장애인학교)와 연계하여 후학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다. 더 나아가 춘천계성학교 학생들을 집중 양육하여 목회자를 배출하는 장기적인 목표와 농아인 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농아인교회에는 청인 4명이 있으며 의사소통은 힘들어도 집사 직분을 맡아 열심히 수어를 배우고, 식당, 청소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건물주이기도 한 최병기 집사가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농아인 들을 정성스럽게 섬겨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김두라 집사가 몇 명의 청인을 위해 수화 설교 통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것이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

마15:29-31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장애우 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장애우들에게 눈길을 주셨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거 동락하시며 사역하셨다. 허인영 전도사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진심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규모가 큰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일 등은 바람직한 일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장애우 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허 전도사는 의문을 표시한다. 특히 농아인 들의 영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중심으로 장애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춘천지역의 유일한 농아인 교회인 '춘천농아인교회'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다. 농아인 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데에는 보다 세분화된 전문선교방식이 필요하다. 농아인 들은 유학(학교졸업자 농아인), 무학(문맹 농아인), 문수맹(한글, 수화 모두 모르는 농아인), 농아인 학생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 전문화된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중 제일 힘든 선교 대상은 무학 문수맹이다. 이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글씨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로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에게 우리는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춘천의 온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인 춘천농아인교회에 좀 더 사랑스런 애정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편집위원 최상도, 사진 김미경]

습관을 바꾸어주는 자기주도교육

- 바꾸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평화 교회

다니엘 공부 세상

자기주도적 다니엘 공부세상은?

※ 학생 스스로 계획, 학습, 평가, 반성하는 학습법

※ 학습 및 생활습관을 바꾸어주는 전인교육학습법

※ on & off-line 교육을 통한 전과목 지도학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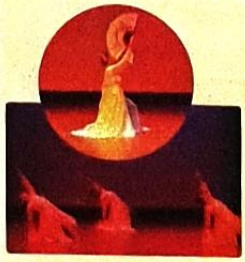
◆ 모집대상 : 6~7세, 초등학생, 중학생(수시모집)

www.schoolcity.co.kr

◆ 위 치 : 퇴계 주공1단지 정문앞

상담문의 : ☎1577-1225 (033) 261-8745, 010-2032-8160, 010-3379-7962

워십댄스 2월 겨울강습회(한국무용 편)



✚ 일 시: 2008년 2월 12일~ 2월 25일까지

✚ 시 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 9시30분(3주과정)

✚ 장 소: 경원대 태권도체육관 (석사동 우석초교 옆)

✚ 내 용: 한국무용풍의 찬양 워십을 배우는 시간 몸으로 찬양드리기 원하는 누구나 참여가능강습회 두 달 과정으로 두곡의 찬양곡 익힘 (선교회비는 유료, 수업이후 차량운행 가능)

※ 어린이 워십반 모집 : 매주 화요일 오후6시~7시30분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263-6022 · 017-374-2440

| 영혼의 양식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갈라디아서 2:11~21



이진석 목사 (신북성결교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어집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며, 그 결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참 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 즉 그 중심의 균형을 잃으면 얼마정도의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삶에 중심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비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마주치게 되자, 혹시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난 사실(12절)에 대하여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믿음은 그 말씀대로 살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 바른 믿음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아 나섰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인간의 연약함은 더욱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의롭게 살기를 힘쓰게 되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의를 성취하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20절) 이제 과거의 바울은 완전히 죽어 없어져 버렸고,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즉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멘!

| 사색의 창

1월 18일, 나의 일기

소영숙 성도(순복음춘천교회, 섬머힐유치원 원장)

나의 존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교육에도 모든 목표가 있듯 우리의 인생 목표도 분명 세워져 그것을 위하여 매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목표도 없이 막연히 하루하루를 산다면 결과가 어디에 이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하루하루로 삶이 가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순간 그동안 갈등으로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품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품안에서 내가 가야할 목표를 붙잡습니다.

저는 어린 때부터 동생을 업어서 기르고 애정을 갖고 보살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의 입장을 잘 알게 되었으며, 그들의 시야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바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그래도 진실이 존재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어린 마음속 깊이 심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멋진 재능을 살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알리고 어린심령에 뿌리를 심어주어 언제인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너무 힘들고 방황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기쁨과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진정 우리 주님 사랑하는 표현을 실천으로 옮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헌신적인 사랑을 어린 마음에 주님의 사랑나무를 심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나무가 잘 자라도록 곁에서 돕고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보살피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더럽고 거짓된 것들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요, 상처와 외욕삼십과 질투와 의심과 배반만을 가져다주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젠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불태워 보렵니다.

"하나님 아이지, 미숙한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서야 조금씩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상 것에 취하여 진실도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음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철저한 내 자신에 대한 회개와 철저한 나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주님에 대한 순종 하나하나가 저를 눈물 나게 합니다. 철저한 신선력,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인내력, 그리고 진실된 사랑과 용서... 아아,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나의 모든 거짓들이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용서하소서. 다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사오니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나주소서. 다시 모습을 보여주소서. 들려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주시고 따뜻이 녹여 주소서. 저의 차가워진 가슴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라 가리이다. 나 그 어디든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룩됨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성명 연락처 첨부)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 강원본부 앞



아는 만큼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우린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으로 더욱 더 풍성해지게 하사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거리낌이 없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빌 1:9-11)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약속에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생명 안에 늘 살고자 성경을 탐구하며(요5:39), 연합하여 동거하려고 교회(교회가 같은 생명을 가진 가족인줄 모르고, 마 23:8-12; 막3:35)를 떠나 공동체를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다("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에 있는 귀중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음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시 133편).

성경의 교회관

교회는 왜 연합이 안 될까? 우리의 잘못된, 잘못 안 교회관 때문이다. 즉 다른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고후11:4). 성경의 교회관은 아래 말씀에서 그 사실을 분별해낼 수 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편지하나니." 고전1:2

이 말씀에서 교회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새 피조물이 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위대한 영적 거성들이나, 조직 형태나, 성경에 없는 예식을 강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잃어버리고 침잔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각처에서'는 지역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로마라는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강조하면서 헴음의 영이 그들 한 가운데 있어 주를 알지 못함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음너 교회가 생겨났듯이, 지역 임장 혹은 지방입장을 성경의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 로마 가톨릭의 낡은 교회관을 답습함으로 순수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성경의 교회는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시공을 초월한 모든 성도로 구성된 거룩한 유기체로(엡 1:21-23) 전 세계에 오직 하나인 것이다(엡4:4.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주님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경의 교회는 반드시 밥티스마(마28:19,20)와 주님의 만찬(고전 11:23-26)을 실행함(고전 11:2)으로 그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가 있어야만 일곱 하나(엡 4, 부르심의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밥티스마, 한 하나님)를 지키라는 권면을 받으며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요일1:3 고전1:9. 교제가 진실함에 따라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된다(골1:9-12). 그것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고전1:10; 엡4:13). 그리고 세상은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며 믿게 될 것이다(요17:21-23). 사람들을 자랑함으로 존 웨슬리, 캄벵, 조용기, 김응조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 자 중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전1:11-13; 3:4, 21).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없어(고전4:16; 엡4:7-12) 혼돈되어 있다. 아니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음으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요4:41-44).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돌이켜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빌2:1-18).

끝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다. 그들의 마음은 연약하여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갈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도 가난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영이 가난한 자(the poor in spirit)와 그냥 가난한 자(the poor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마 5:3과 눅 6:20을 대조할 것).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데 하나 되기를 소원해 본다. [편집위원 이영규]

2008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임원

회 장: 이춘일 목사(애드론순복음교회)
부 회 장: 권기호 목사(시민정로교회), 조영춘 목사(예림침례 교회)
이한준 장로(제일정로 교회)
사무국장: 김혜영 목사(춘천중앙장로교회)
총 무: 이명철 목사(주향정로 교회)
서 기: 백승국 목사(세계로장로교회)
회 계: 정명훈 목사(예강장로교회)
협동총무: 김원종 목사(춘천우리정로교회), 김중석 목사(전라감리 교회)
박종석 목사(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송문식 목사(은성정로 교회)
김기만 목사(목신로침례교회), 오생력 목사(서곡성결 교회)
오의석 목사(남춘천순복음교회), 김현배 장로(영화감리 교회)
아우석 장로(석사감리 교회), 한영수 장로(장내감리 교회)
임영일 안수집사(춘천침례교회)
감 사: 조영호 목사(춘천 그리스도의 교회), 전은풍 장로(제일정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승 갑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우리 곁에 있는 山
검봉산


심악산에서 본 검봉산 전경

춘천 시내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이 검봉산이 아닐까 한다. 아니 검봉산의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구곡폭포와 문배마을은 많이 들었을 터이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강촌역에서부터 문배마을과 구곡폭포를 잇는 계곡까지 위치한 산이 검봉산이다.

검봉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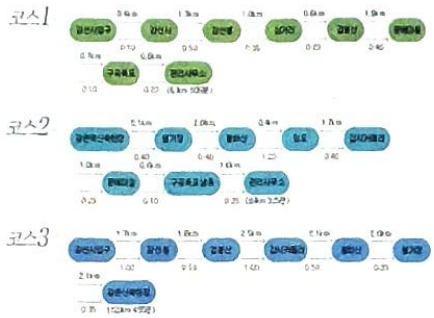
행정적으로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위치해 있다. 북으로 벽양리와 북한강을 끼고 있고 강 건너에 삼악산이 위치해 있다. 높이 530m로 남쪽에 위치한 봉화산(520m)과 더불어 긴 능선을 만들고 있어서 다양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다. 지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U자형의 능선을 만들고 있고 문배마을이나 구곡폭포, 강촌리조트를 끼고있어서 다양한 산행을 할 수 있다. 시내버스는 물론 기차로도 산 입구까지 갈 수 있다는 것과 험하지 않은 능선길로 되어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등산로





등산로 입구는 (들머리) 강촌역에서 200m 떨어진 강선사 안내표지가 있는 곳을 찾으면 된다. 강촌교회 조금 못미쳐에 있는 놀이기구 사이의 길로 올라가면 강선사 입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난다. 태풍 피해로 울창했던 숲이 다 망가져 민망할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길을 따라 거의 1시간 정도 오르면 강선봉에 이른다.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가장 좋다. 이후의 길은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이다. 여름은 숲의 터널을 이루고 있고 요즘은 잎이 지고난 후에 전망이 열려서 북한강을 오른쪽에 두고 편안한 능선산행을 할 수 있다.



1코스는 검봉산을 중심으로, 2코스는 봉화산을 중심으로, 3코스는 두 곳을 다 지나는 종주코스이다. 소요되는 시간은 쉬지 않고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다. 그 외에도 강촌리조트로 나오거나 구곡폭포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코스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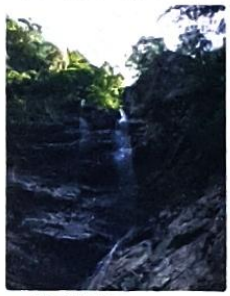

▲ 강선봉에서 바라보는 삼악산과 북한강


▲ 강선봉에서 바라본 남산면

검봉산의 매력

1. 구곡폭포와 문배마을

검봉산의 매력은 이름난 곳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구곡폭포가 있다. 구곡폭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산행 중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볼거리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의 멋이 있다.


▲ 여름의 구곡폭포


▲ 겨울의 구곡폭포

문배마을은 서울에도 많이 알려져 문배마을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아, 이제는 옛날의 호젓한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산행 중에 들려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처럼 추워 밖에서 식사하기 어려울 때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문배마을은 검봉산에서 봉화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2. 긴 능선

사람에 따라 산행을 하는 목적이 다 다르다. 그런데 검봉산처럼 긴 능선을 산행할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좋다. 산에 생각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으라마는 긴 능선을 걸으면 찬송도 나오고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묵상도 가능하다. 높은 산을 오르느라 힘에 부치면 생각은 커녕 제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그런 면에서 능선길을 걷는 맛이 님다르다.


▲ 눈꽃인 능선


▲ 강선봉에서 바라본 검봉산 정상, 그리고 능선

강촌역에서부터 검봉산, 봉화산을 거치는 능선의 길이가 12km이다. 쉬지 않고 걸어서 5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이므로 가까운 곳에서 큰 산행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편집위원 고 재 만]

자연유치원은 귀한 자녀의 첫 학교입니다.

유아학교
SINCE 1993
JAYEONKINDERGARTEN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도 신입 원아모집

* 입학연령 : 2002. 3. 1~ 2005. 2. 29
* 특 전 : 개척교회목회자자녀교육비 전액감면
* 문 의 : www.cyworld.com/jysince93
☎ 241-5511 / 5522
jysince9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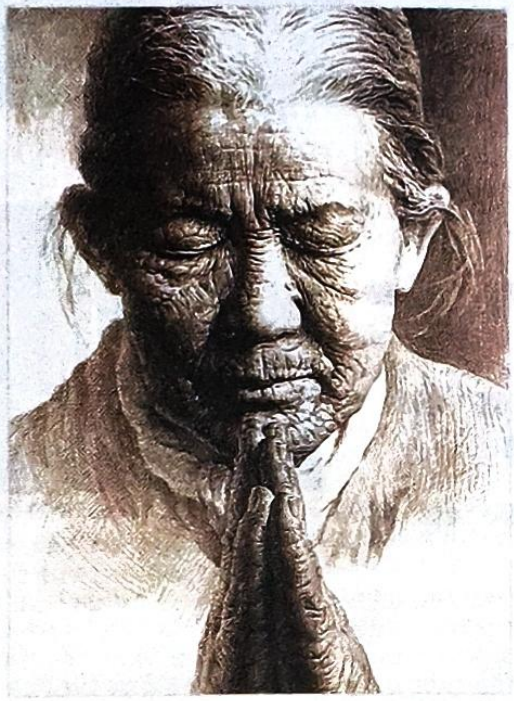


원장 이관형
1993년 은광유치원개원
(현, 자연유치원)
강원대학교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림성심대학교 유아교육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미술치료사, 독서치료사, 아동청소년 상담사, 유아체육지도자, 스피치지도자

(부설)인성미술치료진단연구소/ 신바람길거리응변교육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예수 안에서 본 예술



기도 / 유덕용/ 종이에 연필 소묘, 73X102cm, 2004년 작

주름진 얼굴, 모아진 두 손, 반백의 흩어진 머리칼, 감긴 눈과 다문 입술. '지극정성'이란 말을 떠올리게 하는 할머니의 기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간절함이 배어 있는 손의 하단을 화면에서 제외시킴으로 인물을 화면 가득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빛과 음영이 만드는 입체감이 어찌나 생생한지 마치 한 점의 조각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 장의 캔트지와 연필 한 자루만으로도 이렇게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그려 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믿음의 작가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두 뼘 밖에 안 남은 생애

생애는
지는 저 해처럼
두 뼘 밖에
안 남았는데

이승에서의 기다림 때문에
아직도
이 미로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잃어버린
환영을 쫓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
각인되던 날

길을 열어 주십시요.
그러나
하나님께선 대답이 없으셨다.

詩 / 박 유 석(국제펜클럽 강원도회장)

| 좌흥우틀 건강이야기

감기가 오래 지속되면 '천식' 의심을!!!



오 홍 영
(서울대림성모병원 내과 과장)

감기와 천식, 알레르기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최근 10년간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여 외래환자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식이란

기관지가 아주 예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찬공기, 자극적인 냄새, 담배연기, 매연 등의 자극에 노출시 기관지가 좁아들면서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거나 발작적으로 기침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다. 천식의 전형적인 3대 증상은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음), 발작적인 기침이다.

원 인

생활환경에서 흡입되는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개 · 고양이 털 등 알레르겐(알레르기의 원인물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와 외부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느 원인에 의해서든지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지에 알레르기성 염증반응이 생기고 기관지는 정상인에 비해서 대단히 예민한 상태가 되서 찬공기, 자극적인 냄새, 담배연기, 매연, 스트레스나 특정 약물 등에 노출되면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천식증상이 심해진다.

조기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쌕쌕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만 몇 주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나 운동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천식을 치료하는 목표는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여 폐기능을 가능한 한 정상을 유지시키고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며, 운동을 포함한 정상 생활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10여년 전에는 치료약제가 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사용했지만, 지금 치료약제는 만선염증을 치료해서 기관지가 과민해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기관지에 합병증 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있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지만 호흡곤란 등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혹시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계속 주의를 요해야 한다.

천식 진단 30초 테스트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천식의 증상들

1. 밤에 숨이 차거나 심한 기침으로 잠을 깬 경험이 있다.
2. 기침 감기가 자주오고 또 한 번 걸리면 3주 이상 간다.
3. 감기약이나 혈압약을 먹은 후 숨이 기뻐져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4. 운동 시에 혹은 끝나고 난 뒤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5. 추운 날 외출하면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다.
6. 취침 시 똑바로 누워 자면 가슴이 답답하고 옆으로 누워 자면 편하다.
7.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다.
8. 자주 눈이 가려워 비비는 증상, 또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있다.
9. 가족 중에 위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10. 과거에 천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번 달은 초등, 중고등학교, 대학의 졸업식으로 춘천 전역이 시끌벅적해지는 달이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회 식구들, 선교단체 회원들까지 어우러져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려는 졸업생을 축하할 것이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한다. 졸업이 또 다른 과정의 준비가 된 것을 뜻한다는 의미이다. 영어에 '졸업식'이라는 뜻으로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시작, 개시'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말 그대로 졸업은 시작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졸업생들과 함께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

1. 돌아보지 마라!



한 과정을 마치며 졸업을 하게 될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든다.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 준비해 놓을 걸' 등의 후회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 시간이 화려했든지 초라했든지 되돌릴 수가 없다.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후회하는 마음도 졸업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고도원 형제는 젊은 사람이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 후회와 근심이라고 말한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13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씀한다. 과거에 주께서 주신 시간들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들아, 어제의 입로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의 문제로 근심하지 마라.
모든 어제가 오늘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냐.
모든 내일도 오늘로부터 비롯되는 것.
네가 오늘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반드시 성공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단다
- 우장홍의《어머니의 편지》중에서 -

2. 환경에 위축되지 마라!

졸업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졸업생들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특히 요즘처럼 취업전쟁을 하는 때에 대학 졸업생들의 마음은 매우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은 역사상 어느 때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와 함께 있겠다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막연했던 불안감을 용기를 갖고 도전해서 극복해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옥스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포기하지 마라!"고 했다. 청중들이 그 다음 말을 기다리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고 하며 단상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환경이 너무 힘하다고 해서 미리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말자! 주님이 그 환경보다 크신 분임을 믿자!

3. 인생의 목적을 잃지 말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드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 좋았던 신앙(?)이 점차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삶의 목적 즉,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주님께서 졸업생들을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그 자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사43:7).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전혀 다르다.

두뇌가 아주 명석한 두 아들을 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았던 '캐리'라는 영국의 대부호가 있었다. '조지'와 '윌리엄'이라는 이름의 두 아들은 모두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다. 어느 날 그는 두 아들을 불러 놓고 장래 희망에 대해 물어 보았다. 먼저 형 조지가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부호가 될 거예요." 조지의 대답은 캐리를 무척이나 기쁘게 했다. 이어서 동생 윌리엄이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될래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겠어요" 이에 캐리는 몹시 실망하였고, 그를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호통 쳤다.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인생은 그들의 선택만큼이나 너무나도 달랐다. 조지는 아버지처럼 대부호요 정치가로 명성을 날렸고, 윌리엄은 그의 고백대로 인도 선교사가 되었다.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대영 백과사전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생인 윌리엄에 대해서는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반면, 대부호이자 정치가였던 조지 캐리에 대한 소개는 오직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는 한 줄의 기록만 남았다. 물론 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를 하던 대부호 경제인이 되던 열방을 구원하려고 내게 그 자리를 주신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자리에 있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졸업 이후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임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편집위원 권 기 찬]

예 향

광야를 거친 지도자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 둘 다 비슷했다. 둘 다 능력도 비슷했고, 겸손하게 시작했다. 차이는 오직 하나.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급조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지위가 그를 파괴해 버렸다. 그러나 다윗은 20대를 광야에서 보냈다. 사울의 광기에 찬 추적을 피해 산으로 굴로 도망 다녔다.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자리하고 있던 제2의 사울의 그림자를 죽여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의 영성과 인격을 깊게 하는 리더십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다. 제대로 된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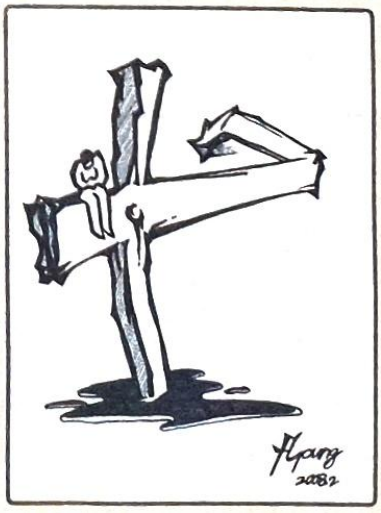
[편집위원 최상도]

2008년 3·1절 연합예배

- ◆일 시 : 2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석사감리교회(손학균 목사시무)
- ◆강 사 : 곽 철 영 원로목사
- ◆주 최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한균 목사)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93@hanmail.net



"십자가 사랑의 문헤로 초대"

참·치·세·상



여러분을 행복이 있는
참·치·세·상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윤 기 천

예약·문의) ☎ 033-264-1335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 내 중간 위치

운수대통 닭갈비



운수대통 닭갈비타운
http://woonsoodaetong.com

대표 윤 기 천

예약·문의) ☎ 033-243-7887 강대후문 먹자골목내

EMWF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이 은 수 (엠마우스 원장)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 3~5배 빨라

산업화와 과학의 발전은 급속하게 인류를 고령화 사회로 진입시켰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를 차지하게 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불과 22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미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는 3~5배 가 빠르다.

특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능이 허약한 80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인 생활동작에 제한을 받음으로 해서 타인의 간병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부양 노인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즉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 장애노인에 의한 만성 질환 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 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에 정부는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은 이전의 조세라는 재원배분방식에서 시장이라는 경쟁체제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운영'이라는 패러다임에서 '경영'이라는 큰 틀로 구조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관리자 체가 아닌 일반사업자나 의료계 즉 민간의 참여 확대가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노인복지에 있어서 교회가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교회는 교회 본인의 중요 활동인 사회봉사와 선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해결책을 강구하여 사회선교 실천원칙과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사랑공동체 '엠마우스'

소양제일교회가 운영주체인 <엠마우스>는 독거 및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일체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치매 · 중풍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로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10인 미만의 규모가 작은 시설이지만 개별적이고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유지하며 집에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과 같은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생활공동체로서 타 시설과 분명한 차별화를 갖고 있다. 특히 교회 본인의 중요 활동인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엠마우스는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이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린다.



[엠마우스 : 033-262-3733 / 춘천시 퇴계동 93-4]

이달의 말씀

이사야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성시화운동본부의 새 출발을 위해**
본부장 한균 목사, 부본부장 조영춘 목사, 신임사무총장에 정재호 목사가 수고하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 **강원도와 춘천의 변화를 위해**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춘천시장 등 지역경제와 문화, 환경의 개선과 변화를 위하여 바르게 일하도록.

· **학생들의 졸업과 입학, 시작을 위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새 학년, 새 학교, 사회를 향하여 진출하는 시점에 꿈을 펼칠 수 있는 축복의 길들이 열리도록. 또한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도시에 많이 일어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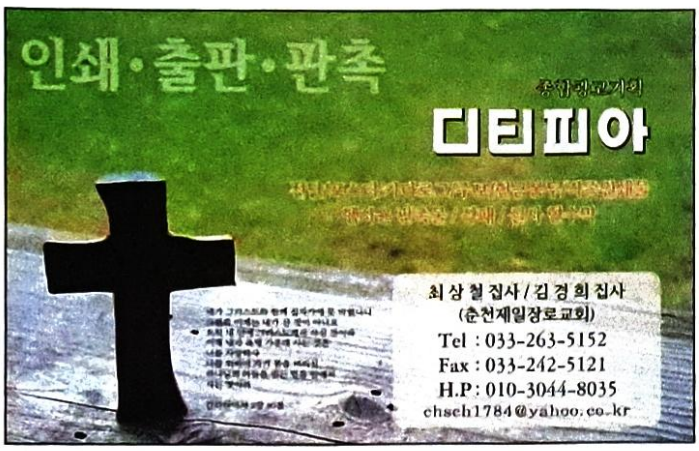
·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아직 복음화율 20%의 장벽을 깨뜨리지 못하는 이 도시에 연합과 변화를 통한 획기적인 부흥의 때가 도래하도록. 또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와 연합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 **CBS춘천방송 사옥 건축을 위해**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온 CBS춘천방송의 사옥건축이 놀라운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역 복음방송이며 동시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방송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가톨릭문화산책 — 영화이야기(8)

왕과 함께 한 하룻밤 ▮ 에스더 이야기

(One Night With The King)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게 된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극적인 감동을 준다. 유대인의 신분에서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바사)의 왕비에 오른 후 자신과 민족을 해치려는 하만의 계교를 통쾌하게 물리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신앙고백으로 용기를 보여준 에스더. 그녀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담은 영화는 1986년 아모스 지타르라는 이스라엘 감독이 만든 것도 있으나 마이클.O.사이벨(Michael O. Sajbel)이 2006년 만든 <왕과 함께 한 하룻밤> 영화가 가장 화려하고 극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티파니 듀폰트라는 신인 여배우를 에스더로 등장시키며 피터 오툴, 오마 사리프 등 명배우들의 연기가 받쳐주는 가운데 수산궁의 화려한 무대와 의상으로 영상미 가득한 영화로 만들어냈다.

이 영화를 접한 네티즌들은 불신자들도 에스더의 믿음에 감동되어 좋은 영화로 꼽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네티즌들의 소감으로 소개를 대신하는 것이 좋을듯싶다.

※ 성경적 지식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영화를 평가할까 궁금해진다. 에스더란 이름이 유태인의 이름이 아니란 걸 이 영화를 보면서 알았다. 주인공들의 연기,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았다. 극 후반부에 에스더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대사만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왜 좋아하는 줄 아는가?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그의 절대적 믿음 때문에 난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기억된다. 나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 dodolo7

※ 한 유대인 고아 소녀가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서사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있을 때에도 영화를 본 한참 후에도 이 영화가 성경이야기라는 걸 몰랐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랬나?"라는 반문을 했을 정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편하게 본 영화. 아름다운 영상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 jiny7651

※ 영화 자체 보다는 에스더 왕후의 행동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 5:16)" 첫 번째로 느낀 것은 기적은 아무 대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말한 에스더의 용기였다. 나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믿음과 용기가 있길 소망한다.

— eyaelina

[편집위원 김춘배]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Y신협 04073-13-016959
예금주 조영훈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월 후원자 명단]

감림리교회	김촌감리교회	
감북성결교회	광영감리교회	
광영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담장로교회	예수촌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춘천지사	자연유치원	
앤투어	디티피아	
쏘인테리어	씨앗컴퓨터학원	
제시뉴욕		
김은선	김길홍	김진상
김현철	김영영	박동환
신성균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판호	이학규	이병연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지상근	최상호	최치광
최예석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순복	

춘천기독교연합회 2008년 1월 회비 납부 교회

광영장로	광염감리	나눔성결
늘사랑장로	동부장로	동신장로
북부장로	새순성결	새춘천성결
석사감리	소양성결	소양제일성결
순복음제일	순복음춘천	시온성결
신사우동	온누리장로	중앙성결
춘천장로	춘천제일감리	춘천제일장로
평화감리	행복을전하는	춘천중부
와이신협	김혜경	홍요셉

책 소 개

평 생 감 사

전광 지음, 생명의 말씀사, 2007.



새해에 걸 맞는 행동은 결심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새해가 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과연 지금 그 결심했던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이다.

이 책 제목과 같은 감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다루는 주제이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주제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정말 감사는 그때나 어울리는 주제인가? 실제 한해를 살면서 감사는 늘 뒤로 밀어놓기에 익숙하다. 그러나 씨 뿌림이 있고 난 후에 거두어들임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 뿌려야할 것이 감사가 아닌가?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기 원한다면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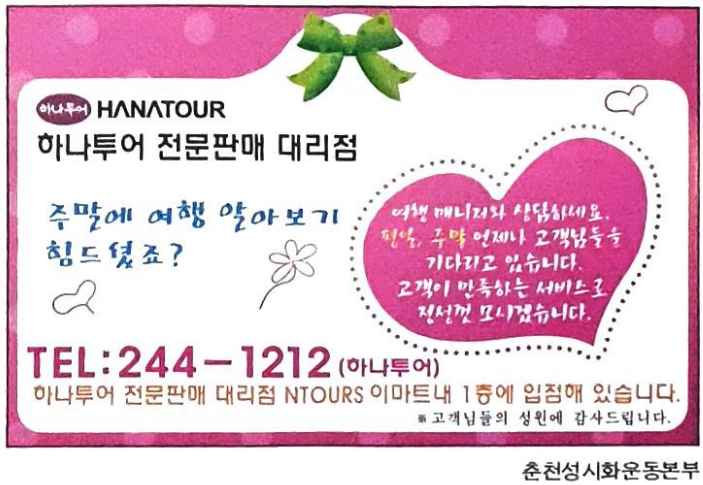
전광목사가 쓴 「평생 감사」는 그런 면에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감사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가 깊은 묵상과 삶으로 수확한 감사를 글로 풀어놓았기에 「평생 감사」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감사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는 마음을 갖게 한다.

감동적인 예화와 더불어 감사에 대한 성경적 묵상, 그리고 감사의 명언들을 모아서 쉬우면서도 감동적인 책을 만들어 냈다.

연초인 지금이야 말로 감사를 배워야 할 때이다. 그래서 감사의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면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일 년 내내 함께할 것이다.

[편집위원 고재만]







마지막 시대의 사 명

한 균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명화교회)

칼 바르트는 그의 교의학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인간론'에 할애하였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 방식에 관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상호의존과 상호배려와 상호협조 속에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즉, 인간은 본래부터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말이다.

급속한 과학의 발달로 지구촌 공동체의 실현도 가능하게 된 것 같다. 지금 전 세계는 초고속 통신망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하나로 묶어지고 있는 것이다. 넓기만 하던 세계가 옛 농촌마을처럼 작아져가고 있어 '지구촌'이란 말이 실감나는 시대가 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오히려 더 심각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 가족도 이웃도 국제관계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그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신되어지는 불안한 세계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런 말세의 현상에 대해 성경은 이미 이렇게 예언한 바 있다.

[딤후 3:1-5]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지금이 바로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하다. 무너져 내리는 인간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열된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며,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다.

[고후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 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춘천기독교연합운동도, 춘천성시화운동도 모두 이 큰 틀에서 이해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TCE 교사대학 1단계
일시: 2월 18일(월) ~ 29일(금) 월,화,목,금 2주간
오전반 9:30-13:00 / 저녁반 6:30-10:00
장소: 춘천지회 사무실(운교동 로터리)
등록금: 1인당 10만원(교재, 간식 포함)
2월 5일 마감 후 120,000원
모집인원: 각반 12명 선착순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i]
※사무실 이전 : 운교동 169-13 운교프라자 5층

◆ 예스컴

1) 2008년 기독동아리 임원단 연합수련회
대상: 춘천시 중고교 기독동아리 임원단
일시: 2월 25일(월) ~ 27일(수) 오후6:30-9:30
장소: 미정
회비: 10,000원
등록문의: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ebve
한승연 간사 010-3369-699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네팔의료단기선교
일시: 1월 28일(월) ~ 2월 7일(목)

2) 순장 수련회
일시: 2월 25일(월) ~ 28일(목)
장소: 춘천CCC 회관
문의: 254-5776

3) 본부 NLTC 목회자반 20기 합숙
일시: 2월 25일(월) ~ 29일(금)
문의: 02-395-8920
※ CCC 어린이집 원아 모집 문의: 010-9533-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신입간사 수료예배
일시: 2월 1일(금)
장소: 서울 홍성교회

2) 전국 수련회 준비 모임
일시: 2월 11일(월) ~ 12일(화)
장소: 횡성유스호스텔

3) 강원 간사 사역협의회
일시: 2월 13일(수) ~ 16일(토)
장소: 강화도

4) 각 학교별 임원 캠프
일시: 2월 18일(월) ~ 22일(금)
장소: IVF 회관
문의: 252-5200

◆ JDM

1) LTC
일시: 2월 12일(화) ~ 15일(금)
장소: 미정

2) IMI훈련
일시: 2월 11일(월) ~ 29일(금)
장소: JDM훈련센터(033-243-6701)
문의: 252-3192 / 010-9054-3192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2월 4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5층
말씀: 이상룡 선교사 (서남아시아 S족)

2) 전국위클리프스쿨 리더수련회
일시: 2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대전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chuncheon@kr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모임

1) 워십댄스 2월 겨울 강습회(한국무용 편)
일시: 2월 12일 ~ 2월 25일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 9시30분(3주 과정)
장소: 경원대 태권도체육관 (석사동 우석초교옆)

2) 어린이 워십반 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00~7:30
문의: 263-6022, 017-374-2440

◆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Scripture Union Korea)

1) 성경묵상훈련과정(초급반)
일시: 2008년 2월 14, 21, 28일(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장소: 춘천예담교회 세미나실
강사: 민만식 목사(강원지부총무, 청메 집필자)
내용: 성경묵상이란, 동기와 필요성, 방법과적용, 나눔과 실습
문의: 지부회관(033-763-9577)

◆ 2008학년도 자연유치원 장학생 모집

대상: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2002.3.1~2004.12.31생)
장소: 춘천시 후평3동 동사무소 건너편 흰색 5층 건물
일시: 2007년 11월 12일부터 선착순 모집
특혜: 교육비 전액 감면(원 20만원)
문의: 033) 241-5511 미니홈피를 참고[cyworld.com/jusince93]

◆ 2008년 3.1절 연합예배

일시: 2월 27일(수) 오후7시
장소: 석사감리교회
문의: 춘천기독교연합회 256-126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
일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2) 2008 춘천찬양경연대회 "SEARCH PRAISE"
취지: 각 교회 찬양단의 활성화 및 찬양단간의 교류
일시: 2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석사감리교회
문의: 제이락 클럽 [www.cyworld.com/jlock]
박유식 전도사 010-9368-9856
이영규 전도사 010-2872-4727

"홀리타임즈"(춘천성시신문의 새로운 이름)의 사용이 보류되었습니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회에서는 춘천성시신문의 새로운 이름을 응모하여 다수의 공모 중 "홀리타임즈"를 선정하여 2008년 1월호에 "홀리타임즈"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회에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춘천성시신문의 새로운 이름 사용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홀리타임즈"의 사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천성시신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회]

■교경협의회 신년하례회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회장:이춘일목사)는 1월 9일(수) 오전11시 춘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08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장명균춘천경찰서장, 김유식경복실장을 비롯해 회원들이 모여 신년감사예배를 드렸고 올 한 해 도 지역의 치안과 경찰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

■홀리클럽 감사예배 및 정기모임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장로)은 지난 12월 29일(토) 오후7시 석사교회에서 박상호목사, 원종국목사, 손학균목사, 허천국회의원, 조남진장로 등과 회원들, 성시합창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는 촛불예배로, 2부에는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며 케익커팅식과 애찬을 나눴다. 이날 회원들이 모은 헌금 전액을 당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최요삼선수 측에 치료비에 써달라며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 최선수는 1월 3일 장기기증을 통해 6명에게 새 생명을 안긴 후 영면했다.

홀리클럽은 1월 21일(월) 오전6시30분 한길교회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2008년 새해에는 홀리클럽의 큰 발전과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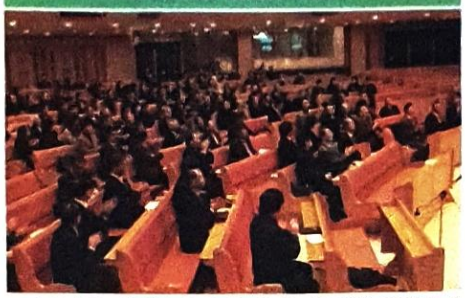
■어린이재단으로 새로운 탄생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1월 1일(화) 신임 최기원관장이 취임하였고, 기관 명칭을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신임 최기원(44)관장은 강원도 홍천출생으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가족치료전공 졸업, 1992년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현,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입문, 한국복지재단 전북지역본부장을 역임한바 있다. 본 기관은 1월 28일(월) 오후1시 한식당 혜인정(대표:심재희)의 후원으로 강원도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피학대아동 등 아동 112명에게 따듯한 식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행복을 나누는 만찬, 동감 For Child"를 개최하였다.

2008년 신년교례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가 주최한 2008년 신년교례회가 1월 5일(토) 오전11시 신성교회에서 열렸다. 김주환목사, 김창수목사, 조남진장로 등 교계지도자들과 허천국회의원, 이광준춘천시장, 이건실춘천시의장 등의 기관장들, 각 기독교단체와 복지단체장, 춘천지역 목회자들, 평신도지도자들 약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서로 연합과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장 한균목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회장으로 섬기신 이원호 목사와 이주호목사(직전총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신년감사예배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권기호목사)는 1월 3일(목) 오전11시 시민교회에서 2008 새해목회비전세미나와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목회비전 세미나에는 증경회장 박상호목사(제일장로교회)가 "교역자 리더십과 목회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춘천성시본부 2008년 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한균목사)는 1월 23일(수) 오전11시 평화교회에서 2008년 제1회 임원모임을 가졌다. 이날 전 춘천성시신문편집장 박상호 목사와 직전사무총장 조영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재정과 성시신문편집방향 보고, 각 전문분과위원 선임, 정기임원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춘천성시본부 신임원단은 본부장 한균목사, 부본부장 조영춘목사, 사무총장 정재호목사, 사무차장 김영명장로로 새로운 마음과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롭게 도약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2008년 신년음악회



춘천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가 1월 24일(목) 오후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2008년 공인의 막을 연 음악회는 상임지휘자인 김윤식씨의 지휘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 '봄의 소리왈츠'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황제왈츠'를 비롯해 로시니의 '클라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 주제와 변주' 아르방의 '베니스의 사육제 변주곡' 등을 연주하였다. 트럼펫 연주자 안희찬, 클라리네티스트 윤승관씨도 함께 협연하였다.

■군선교회 정기총회





군선교강원지회 제7차 정기총회가 1월 25일(금) 오전11시 광장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2007년 사업 및 회계보고와 2008년 계획수립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더 활발하게 군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했다. 이날 지회장으로 3년 동안 수고하였던 박인관목사(광염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신임 지회장으로 위임된 원기배목사(광장교회)에게는 임명장을 전달하였다. 2008년 군선교회 임원은 이사장 김주환목사(순복음춘천교회), 지회장 원기배목사, 간사 이정숙집사(광장교회)가 위임되었다.

■교역자연합회 목회세미나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피종호목사)가 주최한 섬교세미나가 1월 30일(수) 오전10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80여명의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정용섭박사(대구 성서아카데미)는 주제강연에서 "섬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섬교자는 성경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현대 섬교자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시하고 지나치게 청중과의 소통만을 강조한 나머지 비본질적 요소에 지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날 회장 피종호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역자들의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취재 · 김 미 경

200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안내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 2007년 12월 24일(월)~2008년 2월 18일(월)**
교무처 : (033) 257-2740, 016-342-4812
FAX : 241-2741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자격을 갖춘자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3년제	
편 입	2년제	


이사장 김 주 환 목사


학장 이 준 일 목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춘천와이신협

희망을 주는 곳! 사랑이 피어나는 곳!

▌푼돈도 맡겨주시면 정성껏 관리하겠습니다.
▌신협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 공과금납부 · 자동이체 · 예금상담 · 대출상담

신 협에서도
화재보험, 생명보험, 카드거래 가능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성도님들, 교회, 단체 거래시
각종 수수료와 금리를 우대해 드립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
Happy Bank 춘천와이신협
이사장 심 인 섭 장로

운교본점: 255-1007
(1층 신협, 3층 기독교연합회, 4층 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 현진에버빌 2차 옆)